

健忘의 原因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京善* · 丁奎萬**

I. 緒 論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래 이나라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건강이란 육체적인 건강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는 일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인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하여지면 결국에는 기억력의 장애가 야기된다.²⁾

東洋醫學에서는 일찌기 記憶力 障礙에 대한 記載를 볼 수 있는데, 健忘, 喜忘, 多忘 등^{3,10)}이라 稱하였으며 健忘에 대해서 “事有始無終, 言談不知首尾”^{1,7)}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心, 脾, 腎이 健忘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身體的인 異常으로 健忘이 올 수 있다고 보았다.

어린이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해지게 된다. 결국 이런 아이들은 학교내에서 기를 펼 수가 없게끔 위축되던지 반대로 난폭하게 되는 정신적, 성격적인 장애까지도 동반하게 됨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장애마저 가져오므로 사회적으

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²⁾ 이에 본인은 20종의 文獻을 참고로하여 韓醫學의으로 記憶力 障礙 즉, 健忘에 대한 文獻考察을 통해 健忘의 효과적인 治療를 꾀하고자 본 小考에 臨하게 되었다.

II. 本 論

記憶의 機轉

<證治準繩>⁹⁾

人生氣稟不同 得氣之清 則心之知覺者明 心之明者 無
有限量 雖千百世 已往之者 一過目則終身而不忘

健忘이란?

<諸病源候論>⁹⁾

多忘者

<三因方>¹⁹⁾

或曰 常常喜忘 故曰健忘 二者通治

<濟生方>¹⁶⁾

夫健忘者 常常忘者是也

<萬病回春>⁷⁾

健忘者 爲事有始無終 發言不知首尾 此是病名也

…又云 健忘者 隨然而忘其事也

* 慶熙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小兒科學專攻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門寶鑑>³⁾

健忘者 陡然忘事也 爲事有始無終 言談不知首尾

<濟衆新編>¹⁾

事有始無終 言無首尾

<類證治裁>¹³⁾

健忘者 陡然忘之 盡力思索不來也

健忘의 原因

<素問>⁴⁾

秋刺春分 病不已 令人惕然欲有所爲 起而忘之 太陽司天 寒氣下臨 心氣上從 熱氣妄行 善忘 太陽之覆甚則入心 善忘善悲 神門絕 死不治。

秋刺經脈 血氣上逆 令人善忘 冬刺肌肉 陽氣竭絕 令人善忘 血并于下 氣并于上 亂而善忘

<靈樞>⁵⁾

黃帝曰 人之善忘者 何氣使然?

岐白曰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留于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

<諸病源候論>⁹⁾

多忘者 心虛也

心主血脈而藏于腎 若風邪乘於血氣 使陰陽不和 時相并隔 乍虛乍實 血氣相亂 致心腎虛損而多忘

<聖濟總錄>¹⁶⁾

健忘之病 本于心虛 血氣衰少 精神昏憤 故志動亂而多忘也 蓋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苟爲怵惕思慮所傷 或愁憂過損 驚懼失志 皆致是疾 故曰愁憂思慮則傷心 心傷則善忘

<三因方>¹⁹⁾

今脾受病 則意舍不清 心神不寧 使人健忘

盡心力思量不來者是也

脾主意與思 意者 記所往事 思則兼心之所爲也 故語云 言心未必是思 言思則必是心 破方外人譏思心同時 理甚明也

<濟生方>¹⁶⁾

蓋脾主意與思 心亦主思 思慮過度 意舍不清 神官不職 使人健忘 治之之法 當理心脾 使神清靈 思則得之矣

<丹溪心法>¹⁶⁾

健忘有精神短少者多 亦有痰者 此症多有思慮過度 損其心包 以致神舍不清 遇事多忘

<醫學入門>¹²⁾

怔忡久則健忘 皆心脾血少 神虧清氣不足 證屬濁氣上攻…亦有所稟 陰魄不足 善忘者…如老年腎衰者…

<證治彙補>¹¹⁾

健忘由精神短少 神志不交

亦有天稟不足者

亦有屬痰者

內因

憂思過度 損傷心包 以致神舍不寧 遇事多忘 思傷脾 神不歸脾 亦令轉盼忘 若求望高遠 所願不遂 悉屬心神耗散

心不下交于腎 獨火亂其神明 腎不上交于心 精氣伏而不用 火居上 則搏而爲痰 水居下則因而生躁

故補腎而使之時上 養心而使之時下 則神氣清明 志意合致矣

營養心血 調脾土 佐以寧神定志之品

<張氏醫通>¹⁵⁾

石頑曰 因病而健忘者 精血虧損 或爲痰飲瘀血所致 是

可以藥治之 若生平健忘 乃心大竅疏之

按內經之原健忘者 俱責之心腎不交 心不下交於腎 獨火亂其神明 腎不上交於心 精氣伏而不靈 火而爲痰 水居下 則因而生躁 躁擾不寧 是以健忘

<醫學心悟>¹⁷⁾

經云…腎者作強之官 技巧出焉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腎主智 腎虛則智不足 故喜忘其前言

又心藏神 神明不充 則遇事遺忘也

健忘之症 大概由予心腎不交 法當補之…

亦有痰因火動 痰客心包者 此乃神志昏憤 與健忘症稍不相同 法當清心開竅…

<醫門實錄>³⁾

蓋有思慮而損傷心脾 神血耗而不守 停飲而氣鬱成痰 心脾之氣 舒之致也

<濟衆新編>¹⁾

由精神短少 亦有痰者

思慮過多心傷 血耗散 神不守舍 脾傷則胃氣衰而慮愈心

若痰迷心竅健忘

所稟陰魄不足 善忘

怔忡久則健忘有心脾血少

<類證治裁>¹³⁾

夫人之神宅於心 心之精依於腎 而腦爲元神之府 精髓之海 實記所憑也

正希金先生嘗曰 凡人外有所見 必留其影於腦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忘者 腦漸空也

詎庵云 觀此則之人每記憶 必閉目上瞬而追索之 亦凝

神於腦之義 故治健忘者 必交其心腎 使心之神明 下通於腎 腎之精華 上升於腦 精能生氣 氣能生神 神定氣清 自鮮遺忘之失

有因病善忘者

或精血虧損 務培肝腎

或勞思過度 崇養心脾 或精神短乏 兼補氣血

或上盛下虛

或上虛下盛

或心火不降 腎水不升 神明不定

或素有痰飲

或痰迷心竅

或勞心誦讀 精神恍惚

或心氣不足 怔忡健忘

或稟賦不足 神志虛擾

或年老神衰

若血瘀於內 而喜忘如狂

III. 考 察

健忘은 善忘, 喜忘, 多忘, 易忘, 好忘 등으로 불리우며^{9,16,19)} 自己가 行한 前事와 前言을 망각하기를 잘 하므로, 사물을 처리할 때 有始無終하며, 對話를 하여도 首尾를 알지 못한다.^{1,3,7)} 또한 갑자기 잊어 버려서 힘을 다하여 思索을 하여도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¹³⁾

內經<素問.五常政大論>에 太陽司天, 寒氣下臨, 心氣上終…善忘.⁴⁾ 이라하여 健忘의 最初의 記載를 볼 수 있다. <靈樞.大惑論>에 健忘의 病因, 病機에 대하여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留于下 久之不以時上 故健忘也.⁵⁾라 하여 心肺가 虛하고 腸胃가 實하면 營衛가 下焦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腎中の 精氣가 上循하지 못해서 心과 交通하지 못하여 健忘이 發生된다고 보았다.

巢⁹⁾는 健忘의 主要原因은 心虛해서 發生되지만 風邪에

의해서 血氣가 相亂되어 心腎이 虛損되어 發生한다고 하여 外邪도 健忘의 誘因이 된다고 보았다.

宋의 聖濟總錄¹⁶⁾에는 怵惕思慮, 憂愁, 恐懼, 失志로 인해서 心이 損傷되어 心虛하여 健忘이 發生한다고 보아 七情過度가 致病要因이 됨을 이야기하였고, 心虛와 血氣衰少가 健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陳¹⁹⁾은 以前의 心虛가 健忘의 原因이라고 본 것에 比하여 脾의 機能이 意와 思를 주관한다고 보아, 처음으로 脾도 健忘에 관여한다고 인식하였다.

嚴²⁰⁾은 陳¹⁹⁾의 說을 引用하여 健忘의 原因과 定義를 論하였는데 治療時에는 心脾를 調理하여야 神이 淸靈하여서 健忘이 治療된다고 主張하였다.

朱¹⁶⁾는 健忘의 原因을 痰이라고 하여 痰으로도 健忘이 올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思慮過多해지면 心包가 損傷받아 多忘한다고 하였다.

李²²⁾는 怔忡이 오래되면 心脾血少하여서 神氣不足하여 健忘이 된다고 하여 健忘이 怔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濁氣나 先天稟賦가 不足하거나 나이가 들어 腎衰하여서도 健忘이 된다고 하여 先天不足으로도 健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李¹⁶⁾는 <醫宗必讀>에서 心이 腎과 下交하지 못하면 火氣가 神明을 어지럽히고 腎이 心과 上交하지 않으면 精氣가 伏而不用하게 되는데 火가 上焦에 있으면 痰이 되고 水氣 즉 精氣가 下焦에 있는 즉 躁證이 되어 健忘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李는 本病의 原因을 心腎不交라고 여겼다.

李¹¹⁾는 朱의 說을 따라 健忘의 原因을 精神이 短少하거나, 痰으로도 인해서 오며, 또한 思慮過多로 인해서 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治療는 마땅히 心血과 脾土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程¹⁷⁾은 腎은 智를 주관하므로 腎이 虛하면 以前의 말을 잊어버리게 되며, 心은 神明을 藏하므로 神明이 不充하게 되면 잘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여 健忘의 原因의 대부분이 心腎不交로 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痰으로 인해서 心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는 것이 若干의 異見을 가지고 있다. 康¹⁾은 李²²⁾의 說을 참고로 하여 心, 脾가 健忘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林¹³⁾은 사람의 神은 心에 자리잡고 있으며 心之精은 腎에 의지하고 있는데 腦는 元神之府, 精髓之海이므로 腦髓不足해지면 健忘이 發生된다고 주장하였으며 治療 또한 心腎相交하여 腎之精華가 腦에 上昇하여야지만 된다고 하였다. 특히 小兒의 善忘은 腦未滿이며 老人 健忘은 腦가 漸漸 空虛하여서 된다고 하여 小兒와 老人의 健忘의 原因을 구별하였다.

黃²⁰⁾은 健忘과 鑑別疾患으로서 痴呆와 鬱證을 비교하였는데 痴呆는 精神呆滯 沈默不語하여 不知前事或 問事不知等の 情狀을 가지고 있어서 健忘의 善忘前事와는 구별이 되며 痴呆는 근본적으로 不曉其事한 것이고 健忘은 그 일에 대하여 깨닫기는 하여도 잘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鬱證은 精神不振하여 일을 만나면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여 鬱證과 健忘과 輕重의 差異가 있으며 같이 증상이 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虛實을 나누어 볼 때 虛證이 十居七八로서 주로 心, 脾, 腎의 不足으로 나타나고 實證은 痰氣凝結이나 血瘀內阻로 인한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의 소아 정신의학측면^{20,21,22,23)}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주의력결핍장애아동이라는 병이 있는데 주의력 결핍장애아동은 특별한 중추신경계 질환없이 아동기에 과잉운동이나 짧은 주의력을 보이며 행동이 산만하거나 충동적이고 때로는 학습문제나 행동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의력이나 집중력의 결핍 및 최근 기억력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健忘은 주로 心腎不交, 心脾不足, 痰氣, 瘀血 등으로 인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小兒의 健忘의 原因으로는 주로 先天不足이나 心, 脾, 腎不足으로 腦의 機能이 完全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精神의 因子에

의해서도健忘이 발생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IV. 結 論

이상의 健忘에 대한 20종의 文獻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健忘은 주로 心腎不交, 心脾不足, 痰氣, 瘀血 등으로 나타난다.
2. 小兒의 健忘의 原因은 주로 先天不足이나 心, 脾, 腎의 虛弱으로 腦의 機能이 完全하지 못하여 發生한다.

參 考 文 獻

1. 康明吉 : 濟衆新編, 杏林書院, 서울, 1975, pp.172~173
2. 金定濟 : 診療要鑑,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3, p.229
3. 周命新 : 醫門寶鑑, 杏林書院, 서울, 1975, pp.172~173
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256
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p.342
6. 許 浚 :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p.98
7. 眞延賢 : 萬病回春, 世一書局, pp.229~230
8. 董連榮 : 中醫形神病學, 光明日報出版社, 北京, 1991, pp.21~23
9.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昭人出版社, 台中, 31卷, p.4
10. 王肯堂 : 證治準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p.489~491
11. 李用粹 : 證治彙補, 旋風出版社, 台北, pp.33~338
12. 李 梴 :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84, 2卷, p.183
13. 林佩琴 : 類證治裁, 旋風出版社, 台北, 1980, pp.255~257
14. 張伯臾 : 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p.116
15. 張 璐 :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0, p.314
16. 張明准 外3人 : 心-腦-神志病辨證論治, 醫聖堂, 1988, pp.100~108
17. 程國彰 : 醫學心悟, 友聯出版社, 1961, pp.209~210
18. 朱生金 : 小兒百病效驗方, 三秦出版社, 陝西, 1992, pp.259~260
19. 陳無擇 : 三因方, 合聯國風出版社, 台北, 9卷, pp.1~3
20. 黃文東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pp.352~355
21. 이남수의 : 기억력저하 환자에서의 인식유발전위와 기억력검사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Vol.7. No.2, 1989, pp.295~307
22. 이영식, 홍강의 : 한글 독해력 장애 아동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24. No.1, 1985, pp.103~110
23. 윤덕진 : 우리나라 한글 해독불능학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I), 소아과 Vol.17. No.11, pp.17~29
24. 정현희 : K-WISC profile에 나타난 자폐아동과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의 인지특성비교, 소아 청소년의학, Vol.2. No.1, 1991, pp.97~101
25. 하은혜 :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모자상호행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Vol.24. No.1, 1985, pp.103~110